



조직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본연의 자세



현대건설 회장소장
김 덕 준

지반문제에 대하여는 암판정, 사면안정, 지반지지력 등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접해왔으나, 역학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술자들 끼리 논쟁도 해 왔지만, 학술적으로 배운 것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과 현장 실무에서 경험적으로 익힌 것을 기술하기에는 조금 민망스럽기도하여, 생각을 바꾸어 나름대로 학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25년이상 근무 하면서 조직에서 직장 상하 간 동료간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를 틈틈이 정리하여 온 것을 엮지 불구하고 기술하고자 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테고 어느 부분은 동감도 하실 것입니다.

◎자기 직급에 대한 기본업무의 예

자기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업무의 지식과 노력, 또한 업무의 처리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접대, 대인 관계, 일의 처리방법, 맡고 책임지고 있는 일에 대한 보고, 해결능력, 대처방안 등을 무리 없이 처리 하는 것이 자기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쉽과 팔로우어 쉽에 대하여

리더쉽과 팔로우어쉽은 충분히 자기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알고 이행할 수 있으며, 지식과 지혜 나아가서는 덕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의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직원은 부하 직원대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내고 그 해당 직책의 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쉽과 팔로우어쉽에 대해 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더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용장 붙여 지장”이요, “지장 붙여 덕장”이요, “덕장 붙여 복장”이라.

용은 만용이 아니요,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합리적이고 소신 있게 담대하게 모든 것에 대하여 대면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보는 내가 취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음에도 양보 하는 것이 진정한 양보이요, 나의 것을 상대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은 진정한 양보가 아닌 것입니다.

지는 지식과 지혜로써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외에도 업무에 대한 지식과 분석을 통한 올바른 판단과 문제 예측 및 문제 해결 능력, 결정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덕은 선에 대한 의지의 향상적 지향 및 향상적 능력을 말하며, 예의를 갖추어 선을 베푸는 삶을 말함입니다.

복은 개인의 노력 이외의 부분입니다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일근천하 무난사” 같은 말이 있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은 부하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와 분위기 또한 일의 진행과 목표, 문제점 등을 상호 교류를 통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팔로우어 쉬운 신하를 비교 할 때 양신, 충신, 간신, 무신 또는 성신, 공신, 찬신, 태신이란 말이 있듯이 부하된 도리를 알아 잘 따라야 합니다.

조직내의 인·의·예·지·신

■ **인** : 타고난 어진 마음씨와 자애로운 정을 바탕으로 덕을 쌓음을 나타내는 말로 부하직원을 어진마음과 자애로 보살피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꾸중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다고 부하직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하직원이 수궁할 수 있는 잘못된 지적과 또한, 고

생하고 수고 했으면 칭찬도 아울러 동반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마음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상사가 잘못된 지적도 없고 칭찬도 없으면, ‘자기자식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꾸지람 없이 갈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보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인도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꾸중과 칭찬을 하는 것이 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꾸중하지 않고 칭찬도 없이 마음이 좋게 비치는 것은 인이라 할 수 없고 방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함께 현장의 문제를 동병상련하는 자세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 : 지켜야할 바른 도리입니다.

직장에서 의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덕적으로 순수해야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며, 사심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 직장에서도 부하직원 / 상사할 것 없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사에 대한 예의, 부하직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예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제일 먼저 행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의예지신” 중에 기본 이라고 생각하며, 예가 갖추어진 사람이 대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실 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 **지** : 지혜(지식)를 말합니다.

조직 내에서 자기 직급에 걸 맞는 지식이 있어야 하

이탈기사
3/1

고, 또한 지혜(판단력포함)를 겸비하면 더 좋으며, 대체로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겸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직급에 맞는 업무지식이 없으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자기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은 다른 사람(동료, 부하, 상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직급에 걸 맞는 기본적 수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직급에 맞는 기본적인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적인 실무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과 독서 등을 통하여 체득하여야 하고, 특히 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술자라도 협상의 기초적인 법칙 등 심리학과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고, 나름대로 자기 가치기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체득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 신 : 믿음이 있고 성실하다는 말로 대인관계에서 성실함을 바탕으로 신뢰감이 서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부하직원이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 보고를 한다든지, 거짓 변명을 한다든지, 상사로써 부하직원을 속인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신뢰감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같은 경우로서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순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최대의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순간은 속일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고, 거짓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짓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서로 간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신뢰감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나름대로 조직 속에서 “인의 예지신”에 대하여 정리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어울리는 말이지만, 뜻에 있어서는 조금 틀린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노력과 협동 : 노력은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이며, 협동은 다같이 힘을 합하여 하여야만 됩니다.

질서와 조화 : 질서는 혼자서도 지킬 수 있지만, 조화는 질서의 바탕위에 존재합니다.

희생과 봉사 : 희생은 몸이나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 봉사는 이해타산 없이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노력 하는 것입니다.

방임과 자유 : 방임은 무간섭과 무 계획 속의 자유지만, 진정한 자유는 일정한 틀과 제도 안에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로, 질서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글을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만, 욕이나 하지 않을 런지 걱정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일이 많은 직장,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 분들께 잠시 인간관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짧은 소견 몇자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복에 복을 더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맺겠습니다.